

FTA 보다 무서운 사료용 곡물가격 상승



윤 봉 중
축산신문 회장

국제 곡물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미국과 브라질 등 세계의 곡창이라 일컫는 나라들이 곡물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연료 생산을 늘리면서 옥수수를 비롯한 사료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곡물시장의 가격동향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곡물가격이 주요 생산국의 작황이나 환율에 의한 문제라면 단기적일 수 있는 것이지만 최근의 곡물시세는 사료용으로 쓰이는 곡물이 연료생산에 쓰여 지는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이며,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FAO(국제식량농업기구)는 공동으로 발표한 농업전망을 통해 미국과 브라질의 바이오연료생산용 곡

물수요량이 향후 10년간 2배가량 증가할 것이며 국제시장의 곡물가격 상승세가 10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옥수수를 비롯한 사료용 곡물을 국제시장에서 조달해야 할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미국과의 FTA 타결이후 국내산 축산물가격마저 하락, 양축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양축농가에 있어 곡물가격상승은 대처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FTA 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다.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노력 진요

고 곡가(穀價)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현장의 경영체질을 개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시설자동화를 통해 농장관리에 따른 인력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양축현장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국내 축산현장의 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만큼 개선의 여지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마른수건을 쥐어짜는 형태의 원가절감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원료다변화, 부존자원 활용 절실

원료곡물의 다변화로 과도한 옥수수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 사료원료를 옥수수에 주로 의존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료원료를 미국과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체질에서 탈피해야 하는 것이다.

국내 부존자원 이용을 극대화하는 것도 고 곡가시대를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다. 국내 부존자원은 일정부분 활용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집상의 어려움이나 경제성 등의 이유로 인해 외면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옥수수가 바이오연료용 원료로 대거 쓰이는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부존자원활용에 관한 양축농가와 사료업계의 새로운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해외 곡물생산은 원료자급기반

장기적으로 해외에서 사료용 곡물을 개발 생산하는 것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사료용 곡물을 대량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브라질, 중국 등 몇몇 나라밖에 없으며, 그나마 이들 나라 중 중국은 자국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미국과 브라질은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바이오연료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어 사료용 원료곡물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국제 곡물시세가 향후 10년간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본 OECD와 FAO의 전망이 없더라도 우리가 해외에서의 곡물생산에 나서야 함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곡물생산은 과거의 실패 경험에서 알 수 있듯 업계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우선은 업계의 적극적인 개척노력이 필요하지만 막대한 자금수요와 리스크부담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는 축산업경쟁력 제고뿐

이상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국제적인 곡물가격상승은 기반이 취약한 우리 축산에는 한·미 FTA 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 역시 극복해야만 한다. 곡물가격의 상승행진 속에서 축산업이 견재하려면 궁극적으로 체질개선과 생산성향상을 통한 경쟁력제고 뿐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주목해야 한다. 과거의 오일쇼크가 세계경제를 불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지만 이를 계기로 더욱 경쟁력을 높인 국가나 기업도 얼마든지 있다. 한국 축산업 역시 최근의 고 곡가시대를 부단한 경쟁력제고 노력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업계의 비상한 각오와 부단한 노력에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가 보태진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닐 것이다. 